

3년 연속! 콘텐츠 사업을 이끄는 우리 대학

2023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사업 운영 기관 선정



▶교내 전경

우리 대학이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2023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대학과 산업체, 연구소의 혁신적인 산학연과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래 콘텐츠 사업을 이끌어갈 혁신 인재를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되며, 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해당 사업은 집약형과 확산형 두 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 대학을 포함한 6개 대학은 확산형에 선정됐고, 10개 대학은 집약형에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우리 대학은 SW중심대학사업단을 통해 SW 전공자 및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SW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융합 연계 전공 운영을 통해 다양한 학제 간 융합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SW중심대학사업단과 AI공학, 빅데이터, AI콘텐츠 융합

연계 전공,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외국어전공, 뮤지컬전공의 융합 교육을 통해 AI 기술 기반 디지털 휴먼인 마법소녀 창작 캐릭터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 지역 방송국인 KNN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과 제작 실습, AI 연계 교육, 프로젝트 지원 교육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만든 노래로 디지털 휴먼과 실제 배우의 혼합 홀로그램 공연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마법소녀 AI 공연은 올해 11월 28일 우리 대학 센텀캠퍼스 소향뮤지컬 씨어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이 AI 콘텐츠를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작년에는 'AI 기술 기반 비주얼 휴먼 활용 메타버스 실감 콘서트 프로젝트'를 통해 라이브 A.Idol XR(Extended Reality) 공연을 선보였으며, 작년 11월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나리오에 가상의 디지털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 '마스터 A양'을 공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2년 인공지능 연계



▶교내 전경

콘텐츠 창작자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생 19명의 손에서 고작 6개월만에 제작됐다.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SW중심대학사업단과 함께 AI 공학, 빅데이터,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방송영상학과, 뮤지컬학과 등의 연계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여고 과담 연구부인 미영이가 우연히 다른 반 친구가 종이를 먹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되는 호러 드라마로, 4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5분 분량이다. 드라마는 동서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당시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나리오 제작 기술과 3D 스캐너 기술을 이용해 스토리를 제작하고 배우를 구현했다. 학생이 문장의 앞부분을 쓰면 시나리오 AI가 순식간에 한 문단을 만들어 낸다. 미리 200여 가지의 과담을 학습한 AI 프로그램이 새로운 창작 스토리를 내놓는다. 배우는 온몸에 움직임 센서를 부착한 학생 배우가 연기를 하던 스캐너를 통해 가상의 미영이가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구현된다.

드라마에 관한 자세한 부분은 <동서대신문 185호> 2면 기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 마법소녀 AI 공연은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구현될지, 또 작년과 비교해 학생들의 능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김기홍 SW융합센터장은 "인공지능은 콘텐츠 산업에서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의융합적 결과물을 제시하는 예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이 2년 전 시도한 비주얼 휴먼이 현재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콘텐츠계의 빠른 변화에 맞춰 발전하려면 블루오션에 뛰어들 용기, 시장을 선도적으로 만들 기획력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은 2년 간의 행보를 통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세계를 뒤집을 강자격을 가지게 되길 바란다.

김규리 기자 Orlarbfl1@gmail.com

콘텐츠 아시아 No.1을 향해

부산콘텐츠비즈타운 개소



▶부산광역시청

▷사진 출처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은 우리 대학 사회교육원 건물에 설립된다.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 한 후 올해 연말에 개소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국비 약 7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4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돼 부산광역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국비 4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연면적 7012㎡,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은 기업입주실, 복합문화공간, 회의 및 교육실, 전시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특히 기업입주실은 총 5개 층, 25개의 회의실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들 기업 및 지역 유망 콘텐츠 기업과 역외 기업을 유치해 기업 비즈니스 공간으로 재구성 및 제공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2012년 개관한 부산문화콘텐츠플랫폼(센텀시티)을 통해 기업 입주 공간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타 산업에 비해 성장 속도가 높으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는 꾸준히 새로운 형태로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에 대응하고, 과도기를 넘어 강소 기업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을 유치하게 됐다.

부산콘텐츠코리아랩, 부산문화콘텐츠플랫폼에 이은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의 조성으로 콘텐츠 기업의 창작-창업-성장 단계별로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엔 설립되는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은 ▲콘텐츠 지식 재산권(IP) 개발 지원 ▲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 ▲유관 기관 및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 ▲멘토 기업 매칭 지원 성장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강소 기업 배출과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리 기자 Orlarbfl1@gmail.com

동서의 BOM 빛나는 BOOM 신나는 BOMB

뜨거운 열기의 축제 현장, 그 생동감을 담다!



▶민석 축제 불꽃놀이

지난 11일과 12일,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던 민석 축제와 체육대회가 있었다. 이번 축제는 '동서의 BOM(봄), 빛나는 BOOM(봄), 신나는 BOMB(밤)'이라는 메인 슬로건을 주제로 개최됐다.

작년 민석 축제의 경우 축제 당일 비가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어려웠으나, 이번 축제는 날이 맑아 더 많은 학생들이 즐겁게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민석 축제는 ▲13:00 부스 운영 시작 ▲17:00~18:50 동아리 공연 ▲18:50~19:50 2부 동서가요제 ▲19:50~20:50 연예인 공연 ▲20:50~21:00 불꽃축제 ▲21:00~21:30 연예인 공연 ▲21:30 작품 추첨이라는 타이틀이 붙여 아재 진행됐다.

민석 부스는 다양한 동아리, 대학, 총학생회에서 준비해 왔다.

동아리의 경우 ▲에이스의 '에이슬 워터 밤' ▲캔의 '어, 왔네? 온 김에 함께 볼래?' ▲백양의 '한잔 묵고 들어가자' ▲작스의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영입 중

료예요' ▲블루돌핀스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필름웍스의 '필름웍스 인생 네컷 폼 미쳤다' ▲타키온의 '타키온에서 인생한컷' ▲안전제일의 '거 도박하기 딱 좋은 날씨네' ▲임피의 '폭풍을 부르는 임피의 페이스페인팅' ▲다사세의 '민든가! 말든가! 오늘의 운세!' ▲여울의 '여~ 울이 게임 한 판 어때?' ▲레디콕스의 '레디콕스에 전 드시러 와유~'로 구성됐다.

특히 필름웍스와 타키온의 경우 인생네컷과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주는 부스였는데, 인종상을 남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방문으로 부스의 인기가 상당했다. 작년에 게임, 참여형 부스 위주로 구성됐던 것과 반대로 올해는 마스크 해제와 코로나나 종식 선언의 영향으로 음식 관련된 부스가 꽤나 보였다.

대학 부스의 경우에는 ▲글로벌대학의 '울드어 힘 한 방울' ▲사회과학대학의 '사과대량 합하게 놀아 볼래? 애플 합하게' ▲바이오웰스융합대학의 '무게 차고 술 팔라 되면 우리 bye오' ▲미디어콘텐츠



▶운동장에 앉아 무대를 감상하는 학생들

초대학의 '미론, 너로 정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사장님이 닥터 던지던 사망 주는 거래~' ▲디자인대학의 'WELCOME TO DESIGNLAND'로 구성됐다.

각 부스 모두 대학의 특징을 살려 특색 있는 시작을 알렸다. 약 10분 가량 터지는 경우 캐리커처와 페이스페인팅 부스였는데, 축제라는 행사와 알맞은 부스를 구성해 그림을 보여려는 학생들로 인파가 끊이지 않았다.

부스 운영을 종료한 이후로는 동아리 공연과 동서가요제 등 학생들의 끼를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밴드 동아리들의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띄우고, 댄스 동아리 블랙의 공연으로 그 열기를 더 뜨겁게 달궜다. 동서가요제는 해가 지는 밤까지 이어졌지만 학생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동서가요제 우승자에 대한 기사는 이번 <동서대신문 189호> 7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이후로는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던 연예인 공연 시간이 있었다. 1부에서는 박혜

원, 거미처럼 실력과 발라드 가수들의 무대가 준비돼 있었다. 학생들이 때때로 아쉬워할 수 있는 노래와 유명곡을 부르며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후 불꽃축제가 1부의 막을 내리고 2부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강의 실에 엄청난 규모의 불꽃을 학생들 모두 눈과 마음, 카메라로 담았다.

2부에서는 래퍼 우원제의 무대가 있었는데, 대학교 축제인 만큼 가장 반응이 뜨거웠다. 공연을 구성해 준 가수 모두 학생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해 왔고, 학생들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뜨겁게 반응해 주며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각정이 무색하게도 동서인들, 그리고 함께 축제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축제를 즐기고 갔다. 축제에서 보여 준 열기와 열정이 식지 않고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계속 뛰어갈지 바란다.

김규리 기자 Orlarbfl1@gmail.com

'무크' 에서 듣는 최고의 강의

온라인 공개 강좌 운영 사업 공모 선정



▶개별 강좌에 선정된 윤지영, 장주영, 공희숙, 이민아 교수

우리 대학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 운영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로 인해 개별 강좌 3강좌를 운영하게 된다.

K-MOOC의 MOOC(무크)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줄임말로,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을 뜻한다. 이는 강의실에 수용된 학생만이 강의를 들을 수 있던 과거에서 벗어나 청강만 가능한 온라인 학습 동영상으로 변화하고, 현재는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 학습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강좌는 ▲한국 예술과 디자인 입문 ▲일상생활 속 경영 이야기 ▲수학 초보자를 위한 논리로 보는 수학이다.

공모에 앞서 우리 대학 원격교육센터가 'K-MOOC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강좌 개발 계획 컨설팅을 진행했고, 이 결과 3강좌 모두 공모에 선정된 것이다.

한국 예술과 디자인 입문 강좌는 한국인의 미에 대한 의식, 해석 등을 학습하고, 다양한 작품과 시각적 자료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현

장 사이버 견학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끔 했다.

일상생활 속 경영 이야기 강좌는 현명한 소비 활동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 설계를 돕고, 기업과 경영자의 모습, 국제 경영 전략 등을 일상생활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수학 초보자를 위한 논리로 보는 수학 강좌는 숫자의 등장, 수학 공식의 배경, 수학 용어의 역사 등을 학습하고, 수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쉽게 키울 수 있게 구성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강좌는 오는 9월부터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은 현재 실전 타이포그래피, 사람에게 대하여: 과학으로 배우는 성과 젠더 2개의 강좌를 개설 및 강의 중이다.

우리 대학은 최호준 온라인 학사 과정이 승인되는 등 비대면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된 강좌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설될 강좌들에도 많은 관심 및 수강 신청 바란다.

김규리 기자 Orlarbfl1@gmail.com



# 다양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밝히다

##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다



▶AI-SW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리 대학 SW중심대학사업단의 주최 아래 SW창업교육을 담당하는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소속 이준석 교수의 주관으로 진행된 AI-SW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경진대회 최종 심사는 이번 5월 3일 수요일에 진행됐으며, 콘텐츠 제작 및 하이브리드 행사를 진행하고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하며 모든 프로세스의 연계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온·오프라인으로 미디어 다각화 경험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파운더 대표이사 김주성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과 더불어 온라인 마케팅과 IT컨설팅 등을 통해 종합적인 IT서비스를 구축하고 대표적인 부산 지역 내 청년 창업기업으로써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체 서비스 개발을 통해 세상에 편리함을 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DnCommerce 양욱재 대표, 세상을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고객의 가치와 생각을 분석하고 다양한 전공 분야 및 경력을 가진 핵심인력을 주축으로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Digital Platform 개발 전문 기업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맞게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과정을 거쳐 최상의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디지털에 대한 장

의력과 열정으로 최신 트렌드를 연구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주식회사 인시스템 김광준 차장 등 각 업체를 대표하는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평가 아래 펼쳐졌다.

이들은 각 팀의 아이디어에 대해 상당한 사업적인 접근 방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멘토링과 코칭까지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피드백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5월 10일에는 최종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8개 팀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이중에서 'PIR 센서와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어린이 횡단보도 추돌 예방 시스템'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아이디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회적 가치와 함께 기술적 창의성을 인정받아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SW중심대학사업단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고 추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생들의 창업 열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우리 대학의 SW중심대학사



▶생활 속 AI이하기

업단이 사업단 홈페이지에 매주 연재했던 48편의 '생활 속 AI 이야기'를 드디어 책으로 엮어 출간했다는 소식이 있다.

SW중심대학사업단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과 부산의 문화콘텐츠 산업특성을 반영해 "사회와 산업을 위한 문화콘텐츠 AI-SW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방향의 한 축으로 SW중심학과에 AI심화트랙을 신설하여 인공지능 교육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또 다른 방향으로서는 대학의 특성화 전공분야와 SW를 융합해 SW+AI 융합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것이다.

또 SW중심학과 학생들이 AI업체 현장 실습 1회이상, AI프로젝트 2건 이상, AI심화트랙(AI공학, 빅데이터)의 교과목 3개 이상 이수하게 함으로써 인증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AI전공자를 매년 12명 이상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R&D프로젝트 및 산학협력 비교과프로그램(Field-Study, Field-Trip) 100% 참여 의무화, 교내현장시스템(In-school Field System, IPS)과 장단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경험 교육 100% 참여 의무화를 통해 대학과 기업간의 스킬갭(skill-gap)이 제로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AI와 관련된 이슈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대두되고 있고 예술의 분야까지 AI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AI를 이해시키고자 '생활 속 AI 이야기'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특히 '생활 속 AI 이야기'는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온 AI와 관련한 이슈들을 쉽게 기술하고, 1컷 만화로 이해를 돕도록 만들어졌으며, 친근한 캐릭터 민이, 이선, 시연, 막례를 통해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들이 친숙하게 AI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

영상, 스포츠, 의료, 패션, 문학, 게임,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48가지 AI 기술 및 이슈를 만화와 위트 있는 설명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

SW중심대학사업단은 "이 책을 동시대 교직원,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배포해 AI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교외 학교 홍보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삼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 끊임없이 고민해 최상의 결과를 만든다

## 공모전 입상을 통해 노력과 능력을 동시에 입증



▶전남 섬·해양 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 시상식

우리 대학 관광경영·컨벤션학과 20학번 학생으로 구성된 '상여자' 팀이 지난 6월 전남남도 (재)전남관광재단이 개최한 '2023 전남 섬·해양 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에서 전체 2등으로 우수상과 상금 150만 원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섬·해양 관광 활성화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남 연안 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험형 테마 여행 코스, 섬·해양 관광 기념품, 미식 상품, 지역 이벤트 등과 관련된 신규 관광 콘텐츠 공모를 진행했다.

다불어 섬 및 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심사위원이 평가를 진행했으며 전국에서 만 18세에서 45세 사이의 응모자들이 참가해 30건의 입상이 이뤄졌다.

이번에 수상한 팀은 청년 관광 전문가 육성 지원 사업인 '정촌어람 전문가 양성 과정'에 우선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는 우선권을 받았다.

'상여자' 팀은 '추리의 범 : 불로불사의 생각이 남기는 찬산도로의 향해'라는 주제로 완도군의 '찬산도 범바위에 얽힌 설화'를 각색해 지역성을 살린 체험형 추리 관광 상품을 소개했다.

전라남도는 20~30대 관광객 비중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낮기 때문에 20대에서 30대가 선호하는 추리로 이를 보완하고자 관광에 적극적으로 활용돼 심사위원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대회에 참가한 황용정(20학번), 주찬미(20학번), 정지은(20학번), 정세림(20학번) 학생은 "학기 중에 수업 과제로 만든 콘텐츠를 일회성으로 소모하지 않고 공모전으로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전남관광재단이 요구하는 것이 뭘지 고민하며 기존 콘텐츠를 녹이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동기들과 의기투합하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공모전을 경험 삼아 앞으로도 다른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관광경영·컨벤션학과 학과장 권장욱 교수는 "우리 학과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교과과정 단계별 문제해결 중심 학습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광경영·컨벤션학과만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리 대학 관광경영·컨벤션학과는 디지털 변혁의 새로운 관광산업 트렌드와 관광 수요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과 산업체 니즈를 중심으로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박삼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 현실 세계에서든 부캐 양성하자

## 다양한 콘텐츠와 활동으로 새로운 전공을 개척



▶부산항만공사 주최 '진로체험투어'

지난 12일 우리 대학의 Q College는 본교 2, 3학년 학생들과 부산항만공사에서 진행되는 '진로 체험 투어'를 다녀왔다.

이번 진로 체험 투어는 부산 중구에 위치한 부산항만공사의 본사에서 출발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끝나는 코스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를 준비하며 개발 중인 북항과 더불어 관련된 산업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과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투어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직접 항만내선(은누리호)을 승선할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북항을 직접 둘러보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하선 후에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북항 재개발 관련 홍보관을 직접 방문해 북항 재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며 이번 투어를 통해 학생들은 진로 선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또 부산항과 관련해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부산항국제제시간변선센터 ▲부

산항면세점 ▲의료로쿠즈관광센터 ▲선사(랜스타크루즈, JR류스 등) ▲해운물류기업(HMM 등) ▲컨테이너 회사(허치슨 터미널 등) ▲산용품 회사(선박 내 물품 납품회사) ▲마리나 센터 ▲오페라 하우스 ▲엔론사 ▲여행사 등 많은 항만 관련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Q College는 금년 하반기부터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과 대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취업동아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 College는 학생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정하고(Question), 그 답을 찾아가면서(Quest), 빠르게 성장하는(Quantum Jump) 인재를 키우기 위한 부캐 양성 도전 스텝을 지향하는 세상이 없던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대학 안의 대학이다.

우리 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본 전공을 통해 자신의 '메인 캐릭터(본캐)'를 만들어가면서, 1년간 Q College에 입학해 'X-Class', '기업가정신과 자기혁신', '퀀텀점프 프로젝트'를 통해 내면에 감추어진 개와 열정을 살려 도전하는 '서브 캐릭터(부캐)'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Q College-엘이디소프트 업무협약 체결

또한, 벤처 CEO, 1인 크리에이터, 웹툰작가, 영화감독, 게임개발자, 여행작가 등 그 무엇이든 자신만의 부캐를 만들려는 열정만 있다면 부산을 벗어나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도전하고 그 결과물로 전공 학점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메타버스 캠퍼스(Metaverse Campus)'를 구축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오가며 교육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 Q College와 ㈜엘이디소프트 조상수 대표가 지난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동서대학교 Q College 과장인 박희진 교수, ㈜엘이디소프트 조상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발전 기반 기술 향상 ▲경영 및 인적 역량 향상 ▲지역산업과 사회 발전 이바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엘이디소프트는 크로스패워LED 빛파장을 이용해 바이러스/세균을 99.9% 살균하는 기술로 2022년 10월 살균위생 헬스

케어 브랜드 '라파비(RAPHAB)'를 출시한 바 있다.

엘이디소프트는 부산 대표창업기업으로 최근 서울 강서구에 서울영업을 개소해 수도권 영업을 강화해 분당 서울대병원과 MOU를 맺어 살균조명 현장 실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라파비 살균조명은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 등 단체장소의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장소에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라파비(RAPHAB)'는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고대 히브리어 '라파(RAPHA)'와 부산(BUSAN)의 'B'를 합성한 이름으로, 부산에서 시작해 전 세계에 살균위생 헬스 케어 제품을 보급하는 브랜드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우리 대학 Q College 과장인 박희진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학프로젝트를 통해 엘이디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살균 기술을 바탕으로 후대용 살균 무경을 개발하여 상품화를 모색하겠다"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박삼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 다양한 경험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다

##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현실감 있는 강의



▶2023 DSU PASTEL 창업TED(동기유발) 프로그램 운영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은 지난 25일 창업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동아리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하고 이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제1차 PASTEL 창업동아리 TED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TED 프로그램에서는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궁금증, 창업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문제유 대표(우리 대학 경영학부, 2023년 2월 졸업)의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강의를 오프라인과 온라인 행사의 이점을 동시에 누리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했다.

특강을 위해 초빙된 플루오(FLUO) 문제유 대표는 우리 대학에 다니던 중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창업교육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창업300' 등 여러 창업경진대회에 출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창업을 이룬 창업동아리에 참여한 대표적인 학생들의 선배다.

문제유 대표는 참여 학생들과 창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 특히 실전 창업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부 분야에 대해 강조했다며 업무 처리, 협업 등 주요 핵심 사항에 대해서도 창업동아리 참여 학생들에게 맞춰 눈높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창업동아리 활동에

서부터 실제 창업까지의 다양한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가 선배의 노하우를 배우는 계기가 됐다. 또한, 2023년 '창업300'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고충을 듣고 경진대회를 참여하는 자세와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현장 상담을 진행하는 시간도 가졌다.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은 "이번 창업동아리 TED 프로그램은 창업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유용한 특강이다. 학생들이 창업교육센터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 증진과 창업 활동의 욕구 고취로 창업 유망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향후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계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창업가 정신이 충만한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LINC 3.0 사업단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일부터 AI·스마트관광 분야 ICC 공유·협업 3차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으며 새로운 회원 모집과 관광분야 글로벌 공유협업 프로그램의 기획, 각 대학이 보유한 관광 분야 공유 시설 및 인프라 공동 활용 방안 등을 모색했다.

박삼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 최고의 연기로 감동을 선보이다

연기과, 이번에도 실력으로 입증했다



▶제41회 부산국제영화제

제 41회 부산 국제영화제는 지난 7일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43일 간 총 5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그중에서 경연으로 이루어지는 섹션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대표극단 섹션 14팀이 응원지킴 소극장, 나다 소극장, 하늘바람 소극장에서 공연했으며, 신진극단 섹션 5개 팀이 소극장 6번 출구 극장에서 공연해 부산을 대표하는 총 19개의 극단들이 경연에 참여했다.

우리 대학 연기과 졸업생 극단은 부산 대표 극단 섹션으로 4팀이 참여했으며, 신진 극단 섹션으로는 1팀이 참여해 기성극단들과 경연을 펼쳤다.

부산 대표 섹션의 졸업생 극단은 '코코'(안성근 07학번), '아티스트라'(박성준 13학번), 'B급 로터리'(권상우 10학번), '아이컨택'(양승민 11학번)이며 신진극단 섹션의 졸업생 극단은 '단추'(이지혜 18학번)이다.

이번 부산 국제영화제의 부산 대표 극단 경연에는 총 11명의 개인상과 4팀의 단체상이 주어지는데, 14개의 참가팀 중 가장 우수한 작품 두 팀에게만 수상하는 우수 작품상에 연기과 졸업생 극단 두 팀이 기성극단들을 제치고 모두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우수 작품상을 받은 극단은 '코코'(안성근 07학번)와 '아티스트라'(박성준 13학번)이다.

극단 '코코'(안성근 07학번)는 '우수 작품상' 뿐 아니라 '우수 무대 예술상'과 '우수 창작 희곡상'도 동시에 수상을 해 무려 3관왕에 올랐으며, 극단 '아티스트라'(박성준 13학번) 또한 '우수 작품상'과 '우수 무대 예술상'을 동시에 수상해 2관왕에 올랐다.

그 외 졸업생 극단 'B급 로터리'(권상우 10학번)는 '우수 무대 예술상'을, 극단 '아이컨택'은 '우수 연기상'(양승민 11학번)과 '베스트 앙상블상'(양승민 11학번, 강승환 12학번, 백규진 13학번)을 수상했다. 이와 더불어 2022년에 졸업한 졸업생이 만든 신진 극단 '단추'(이지혜 18학번)는 경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진 섹션부문에서 연기상(류시화 18학번)을 수상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의 수상 결과는 우리 대학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연기과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연극과 공연·예술 부문에서 실력 있는 인재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우리 대학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연기과는 국내 유일의 메소드 연기 시스템 교육을



▶극단 코코 <물의 '우비' 입은 날>

실현하고 있으며, 영화과의 연계수업 및 산업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배우, 연출, 기획, 조명, 음향, 무대 미술, 분장 등은 물론 교육자로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배우로서 필요한 모든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으며, 1학년 과정에서는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연기 요소 훈련을 비롯한 연기의 기본을 다지고, 2학년 과정에서는 관찰 수업, 역할 구축 연기 등을 통해 연기의 기본자세와 다양한 상황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기본기를 익힌다.

고학년인 3,4학년 과정에서는 1,2학년 과정을 바탕으로 매 학기 공연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인 무대 연기술을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영화 촬영 등 실습 과정을 거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졸업생 극단 'B급 로터리'(김경민 09학번)의 부산국제 '대상'과 2020년 대한민국연극제 '은상을 기점으로 2023년 '백상예술대상 연극상 후보'(장한세, 09학번)에 이어 이번 부산 국제영화제의 다수의 단체상과 개인상 수상이 다시 한 번 이를 입증했다.

이번 경연에 참여한 5팀의 극단 졸업생들은 입학 때부터 졸업 이후까지 우리 대학의 LINC사업단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

중 하나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 '캡스톤 디자인'과 '창업동아인'(연기와 인큐베이터, 연기와 디스커버리)의 프로그램을 거쳐 산학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인 'ALLSUN 산학트랙'(PAR'S 작가전)과 지역협업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계 Living Lap 프로그램'(연기과, 졸업생 극단 창작작품 개발 프로젝트), 메가프로젝트(연기과, 졸업생극단 작가전)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 LINC 사업단의 지속적인 연계 지원을 통해 프로의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탄탄한 실력을 갖춘 우수한 단체로 성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이 지역에서의 상아탑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더불어 지역의 협업 기관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대학 정책국 총장의 가장 큰 결의가 이렇듯 거대한 효과로 만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 총장은 지역 거점의 우수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단거점 성과보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인재양성을 지향하며 인간 본연의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 또 한번 우리 대학의 저력을 입증하다

권위 있는 수상으로 일류 대학의 자격을 보이다



▶스위스 국제 광고제 수상

우리 대학이 올해 스위스 'GOLDEN AWARD OF MONTREUX' 국제 광고제에서 'Fake Boss' 작품이 WINNER를 수상했다.

우리 대학은 작년에 처음 출품해 WINNER를 수상했고 올해를 포함해 2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WINNER를 수상한 작품은 대학 혁신지원사업단, SW중심대학사업단, LINC 3.0 사업단의 지원으로 우리 대학의 융합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이디어선용합실습' 수업(광고홍보학과+소프트웨어학과)에서 작업한 결과물이다.

1989년부터 시작된 몽트뢰의 황금상은 광고, 미디어, 디지털, 영화 및 이벤트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을 기리는 최초의 국제 대회로 여겨져 왔다.

올해 스위스 몽트뢰 골든 어워드 심사위원들은 24개국의 글로벌 광고 대행사 CEO,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글로벌 마케팅 매니저 및 디렉터로 구성된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컸다.

모든 수상자는 스위스를 포함한 국제 랭킹 목록에 등록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보도 자료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홍보돼 Talent Award를 플랫폼으로 사용해 주요 국제 전문가에게 전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우리 대학의 International College Film and Visual Effect 학과 소속 진치수 학생이 올해 개최된 제40회 부산국

제단편영화제의 Asia Shorts 부문 내 '영화관의 죽음(The Death of Cinemas)'이라는 프로그램에 작품이 선정돼 초대상을 받았다.

진치수 학생은 현재 우리 대학과 중남재경정보대학의 합작대학 한중유미디어대학 영화학과 소속 공동교육 과정을 이수 중이다.

이번 제4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선정된 <Love of Cinema Dream>이라는 작품은 2021년 진치수 학생이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당시 제작한 작품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컸다.

진치수 학생은 영화제 기간동안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을 가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 이어진 소감 발표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의 전당에 나의 작품이 선정돼 세계 각지에서 온 관객들 앞에 상영된 것을 매우 영광이라 생각한다. 만약 전공 교수님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 교수님들과 학교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린다. 지금 느끼는 기분은 대학 4년의 생활 중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4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전세계 39개국 146작품 상영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 운동처방학과의 뜨거운 애교심을 엿보다

운동처방학과 직업박람회 및 간담회



▶박람회 참여 인원

취업진로처가 주최하고 운동처방학과가 주관한 이번 2023 READY 기반 패키지 프로그램은 '취업 분야별 우수 졸업생 초청 진로 직업박람회 및 간담회'라는 주제로 5월 9일 금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UIT관 국제세미나실 및 6층 로비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운동처방학과 학과장 최현희 교수 ▲박병주 교수 ▲김성경 교수와 재학생 120명, 그리고 졸업생 20명(▲00학번 이환수, 임정우 ▲01학번 이동하, 강명승 ▲02학번 정원상, 전기정 ▲03학번 김희은, 김명진, 지국배 ▲04학번 허윤구 ▲05학번 안하나, 최병석, 안현동 ▲06학번 윤주우 ▲07학번 임근영 ▲12학번 안혜림 ▲13학번 이준혁 ▲14학번 서상준, 김영석 ▲15학번 이윤희)이 참석했다.

행사의 시작은 박병주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운동처방학과 총동문회 회장 00학번 임정우 졸업생의 축사, 졸업생의 소개, 강의 및 간담회 순으로 실시됐다.

특히 미국에서 의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해 개인원 운동처방학과 05학번 안현동 졸업생은 영상으로 '본인은 본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많이 받아 지금의 내가 있다'

며 학교의 지원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재학생들에게 진로와 학과의 발전을 위한 응원의 말을 전했다.

각 분야별 동서대학교 운동처방학과 졸업생들은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전문가로써, 재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강의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현장에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했다.

졸업생들은 성공 노하우와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 등 자신만의 스토리를 풀어냈으며, 특히 '자신을 브랜드화 하라', '기회는 타이밍이다', '인생은 자유 여행과 같다', '창업하라', '자신이 잘하는 것에 주목하라' 등의 슬로건을 외치며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2시간 정도로 편성된 강의를 4시간을 훌쩍 넘겨 끝날 정도로 졸업생과 재학생의 열정이 돋보였다.

강의가 끝나고 ▲스포츠 창업 분야 ▲사상구 체육회 ▲운동처방(보건소) 분야 ▲프린팅 분야 ▲PT 분야 ▲노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졸업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평소 및 강의를 듣고 나서 각 분야별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었던 진



▶경찰관속으로

로와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졸업생들과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학생들은 선배 졸업생들의 진로 및 직업의 경험담, 진로에 대한 정보, 취업 연계로 이어지는 질의 응답 등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졸업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졸업생들은 "재학 시절 학교와 교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후배들에게 전달하고자 기꺼이 생계를 잠시 접어두고 모교를 방문했으며, 모처럼 재학생 시절로 돌아가 옛 추억을 회상하면서 동문지간의 따뜻한 정(情)을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됐다"며, 특히 재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박람회 및 간담회가 끝난 뒤에 디너 세 미션을 진행했다. 디너 세미나를 통해서 'Before Dongseo, After Dongseo(BDAD)'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번 박람회 및 간담회는 운동처방학과 교수, 졸업생, 재학생 모두가 학과의 발전을 목표로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졸업생들은 강의의 통해 받은 강의의 진부를 재학생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총동문회를 통해 운동처방학과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후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재학생에게는 취업 희망 분야에 대한 진로 기회 확대와 다양한 취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운동처방학과는 "졸업생, 재학생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특히 학교를 떠났음에도 기꺼이 생계를 접고 모교를 방문해 준 졸업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다. 재학생들에게도 졸업생이자 현직 사장인 이들과의 간담회가 많은 도움이 됐기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이런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취업 박람회 및 간담회를 통한 특강 및 교육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와 채용 기회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학생과 졸업생과의 1:1 맞춤 상담 및 지원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힘쓰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규리 기자  
01rarbfi1@gmail.com

## ■ 취업 책 소개 - 경찰행정학과

### 인구가 1명 줄어버린 관내를 아무렇지도 않게 순찰 돌아야하는 직업



▶경찰관속으로

우리는 꿈을 위해서 내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때, 우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찬다. 꿈을 이룬 뒤 내 모습을 그려보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샘솟는다. 하지만 그 꿈의 현실적인 모습, 그 직업의 이면의 모습은 잘 모르기도 한다. 이를 알았음에도 내가 이 꿈을 이뤄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면, 그것은 고된일이다.

우리는 꿈을 위해서 내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때, 우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찬다. 꿈을 이룬 뒤 내 모습을 그려보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샘솟는다. 하지만 그 꿈의 현실적인 모습, 그 직업의 이면의 모습은 잘 모르기도 한다. 이를 알았음에도 내가 이 꿈을 이뤄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면, 그것은 고된일이다.

우리는 꿈을 위해서 내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때, 우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찬다. 꿈을 이룬 뒤 내 모습을 그려보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샘솟는다. 하지만 그 꿈의 현실적인 모습, 그 직업의 이면의 모습은 잘 모르기도 한다. 이를 알았음에도 내가 이 꿈을 이뤄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면, 그것은 고된일이다.

우리는 꿈을 위해서 내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때, 우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찬다. 꿈을 이룬 뒤 내 모습을 그려보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샘솟는다. 하지만 그 꿈의 현실적인 모습, 그 직업의 이면의 모습은 잘 모르기도 한다. 이를 알았음에도 내가 이 꿈을 이뤄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면, 그것은 고된일이다.

막막해지는 이야기다. 작가는 수많은 사건을 겪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피해자이기도 했고 가해자이기도 했다. '살려주세요'라며 허위 신고를 한 절없는 사람, 여자 친구를 집에서 추행하려는 파렴치한 남자, 가정폭력으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과 이를 없이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있던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옆에 남은 사람들까지. 한 사람 속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바쁘다 바쁜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떨어져 나온 탓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직업이 경찰관임을 깨달은 작가는 고된일이다.

우리는 꿈을 위해서 내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때, 우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찬다. 꿈을 이룬 뒤 내 모습을 그려보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샘솟는다. 하지만 그 꿈의 현실적인 모습, 그 직업의 이면의 모습은 잘 모르기도 한다. 이를 알았음에도 내가 이 꿈을 이뤄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면, 그것은 고된일이다.

우리는 꿈을 위해서 내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때, 우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찬다. 꿈을 이룬 뒤 내 모습을 그려보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샘솟는다. 하지만 그 꿈의 현실적인 모습, 그 직업의 이면의 모습은 잘 모르기도 한다. 이를 알았음에도 내가 이 꿈을 이뤄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면, 그것은 고된일이다.

우리는 꿈을 위해서 내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때, 우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찬다. 꿈을 이룬 뒤 내 모습을 그려보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샘솟는다. 하지만 그 꿈의 현실적인 모습, 그 직업의 이면의 모습은 잘 모르기도 한다. 이를 알았음에도 내가 이 꿈을 이뤄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면, 그것은 고된일이다.

우리는 꿈을 위해서 내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때, 우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찬다. 꿈을 이룬 뒤 내 모습을 그려보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샘솟는다. 하지만 그 꿈의 현실적인 모습, 그 직업의 이면의 모습은 잘 모르기도 한다. 이를 알았음에도 내가 이 꿈을 이뤄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면, 그것은 고된일이다.

우리는 꿈을 위해서 내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때, 우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찬다. 꿈을 이룬 뒤 내 모습을 그려보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샘솟는다. 하지만 그 꿈의 현실적인 모습, 그 직업의 이면의 모습은 잘 모르기도 한다. 이를 알았음에도 내가 이 꿈을 이뤄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면, 그것은 고된일이다.

정연연 수습기자







#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 현충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6.25전쟁일 중심으로



▶ 국립서울현충원



▶ 태극기



▶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진압 경찰과 시위하는 모습(1987년)

▶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코리아

6월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기념일들이 있는 달이다. 6월 6일은 현충일,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 기념일, 6월 25일은 6·25전쟁일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만큼 6월의 역사기념일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 현충일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역사기념일은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받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계양을 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돼 한국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했으며 백만 명이 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공공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해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해 공휴일로 하고 기념 행사를 가지도록 했다.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광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정됐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이 됐다.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때 행하는 바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행된다. 추모 대상 범위는 한국전쟁에 전사한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 # 국기 게양 방법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띄우지 않고 게양한다. 그러나 현충일과 국가장 기간과 같은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띄어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기 게양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자면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는 깃면을 깃봉까

지 올린 후에 깃면 너비만큼 다시 내리서 달고, 강하할 때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국기를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해야 하며,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다.

### # 6·10민주항쟁 기념일

두 번째로 얘기해 볼 역사기념일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다. 6월 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시위를 말한다. 1979년 12·12 사태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이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고 그해 5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이 사건이 은백-축소된 것으로 밝혀지게 됐다. 이에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6월 9일 연세대생이었던 이한열 군이 시위 과정의 부상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면서,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민주화 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6월 민주 항쟁은 1987년 6월 10일에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본격화됐다. 학생들을 비롯해 일반 시민까지 참여한 시위가 20일간 이어지자, 결국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이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다.

6월 민주 항쟁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후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사회 여러 계층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며 시민운동도 활발해졌다.

### # 6·25전쟁일

세 번째로 얘기해 볼 역사기념일은 6·25 전쟁일이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휴전 협정을 맺을 때까지 약 3년간 지속됐다. 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시설이 파괴됐다.

1949년 3월, 김일성과 박헌영 등 북한의 핵심 인물들이 평양을 떠나 소련을 방문해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의 지도자들과 만났다. 이때 소련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것에 동의하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김일성은 이어서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과 만나 남침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중국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인 부대를 귀국시키고 보급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1948년 12월, 소련은 북한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미국에게도 남한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1949년 6월, 미군이 철수하자 북한의 전쟁 준비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됐다.

이 와중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좋은 상황이 마련됐다. 미국이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더라도 남한을 돕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것으로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엄청났다. 남한의 사상자만 150만 명이 이르렀고, 1천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국토는 황폐

화됐고, 산업시설이 잿더미가 됐다. 전쟁으로 농업 생산이 어려워져 식량이 모자라고, 수많은 공장과 도로, 철도의 파괴로 공업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가장 심각한 점은 민족 간의 적대감이 더욱 심해졌다는 점이다. 남한군은 북한과 관련된 자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고, 북한군은 남한과 관련된 자들을 '반동 분자'로 몰아 죽였다. 임시로 나뉜 38도선은 휴전선으로 굳어지고 남북 분단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 # 글을 마치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역사기념일에 대해 알아왔다. 현충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6·25전쟁일 등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현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며, 영원토록 기억해야 한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국기 게양일, 현충일, 6월 항쟁, 6·25전쟁> 김나현 수습기자

# 우리 민족의 꽃, 무궁화

##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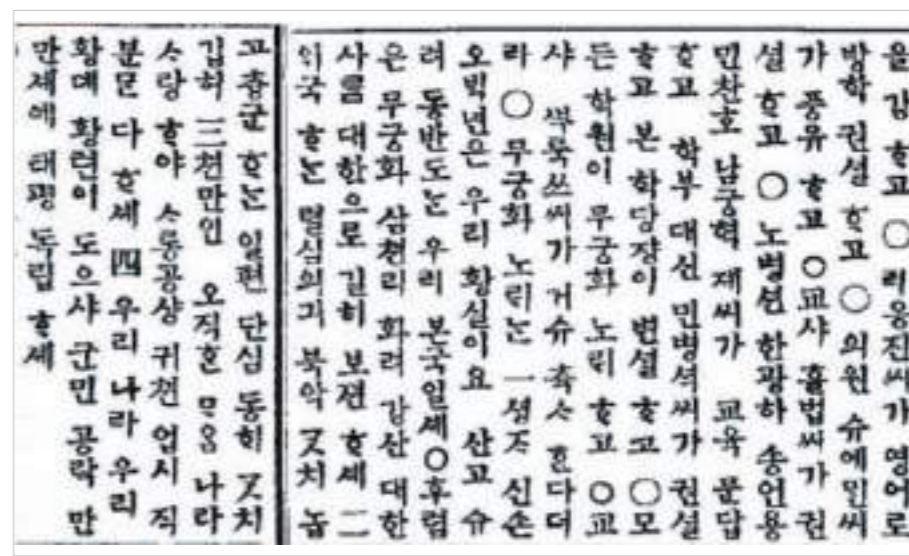


▶ 민속오락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 만개한 무궁화

▶ 사진출처-연합뉴스



▶ '무궁화노라'에 실린 애국가 가사

▶ 사진출처-독립신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민속 오락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제목을 들어다보면 우리 민족의 꽃,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라는 꽃이 써 있다.

우리는 무궁화를 자주 들어 봤다. 하지만 무궁화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 중 무궁화 품종인 배달계, 단심계, 아시달계 등 10개가 넘는 꽃 이름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어봐보면 그동안 나라꽃인 무궁화는 태극기나 애국가에 비해 교육 및 홍보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낮아졌던 것 같다. 오늘 무궁화의 고귀함, 끈기와 인내, 평화의 정신에 대해 깊이 알고 선양해 보고자 한다.

### # 무궁화의 역사

무궁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귀족이 아닌 백성들이 많이 심고 가꾸던 꽃이 국화로 선정됐다.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의 국화를 보면 황실이나 귀족의 상징이 전체 국민의 꽃으로 만들어졌지만, 무궁화만은 유일하게 평민인 백성들이 많이 심고 가꾸던 꽃이 국화로 선정됐다. 우리 민족과 무궁화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꽃이었다.

이렇게 무궁화가 우리 민족과 연관돼 나타난 역사적 배경은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 반만 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무궁화의 원산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춘추전국 시대 때 적힌 지리지인 『산해경』이라는 책에는 "군자의 나라(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것)에 훈화초(무궁화의 옛 이름)가 있는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진다"라는 기록이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귀하게 여겼고, 신라는 스스로를 근화향, 곧 무궁화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선 세종 때 강화안이 저술한 한국 최고의 화목에 관한 책인 『양화소록』을 보면 "단군이 개국할 때 무궁화가 비로소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일컫는 바

드시 '무궁화의 나라'라 말했으나, 무궁화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봄을 장식했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라는 기록 또한 존재한다.

1935년 10월 21일 《동아일보》 학예란에 "조선의 국화, 무궁화의 내력"이라는 제목 아래 "아마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조선에 개화종이 불어오게 되고...종라...애국가를 창작할 때 애국가의 뒤풀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이 들어가면서 무궁화는 조선의 국화가 됐다. 안장호 등이 맹렬히 민족주의를 고취할 때 연단에 설 때마다, 가두에서 부르짖을 때 마다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무궁화 동산을 질주함에, 여기에 자극을 받은 민중은 귀에 쫓고 입에 익어서 무궁화를 인식하고 사랑하게 됐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말은 우리 한민족의 가슴속에 조국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뜻으로 남게 됐다. 이렇게 무궁화는 애국가에 포함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 # 무궁화의 개화

무궁화는 대개 4월 말에서 5월 초 잎이 피기 시작하며 6월 초순순 그해 새로 난 가지의 잎겨드랑이 쪽에 꽃봉오리가 생성된다. 7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가지가 계속 자라면서 위쪽으로 향해 듣는 잎의 겨드랑이마다 꽃을 피우는 무한해서 아래에서 위로,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꽃이 피는 모양이다.

꽃 한 송이의 수명은 활꽃의 경우 12시간에서 최대 15시간으로 아침에 피고 저녁에 오드라되며, 한번 오드라든 꽃은 다시 피지 않고 그대로 시든다. 그래서 무궁화는 아침햇살이 퍼질 무렵부터 오전 10시 전후까지가 가장 신선하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 # 무궁화의 외관

무궁화의 기본형인 활꽃은 한 송이 꽃에 암술과 수술을 함께 가진 양성화이며, 꽃

잎과 꽃받침을 모두 갖춘 완전화라고 할 수 있다. 꽃 밑에 꽃대가 있어 그 위에 꽃받침이 있고 5개의 꽃잎이 있는데 품종 및 개화시기에 따라 4~8매까지 관찰된다.

꽃 색깔은 순백색의 꽃과 순백색 이외의 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순백색 이외의 무궁화는 전부 화심부에 붉은색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단심(붉은색 무늬)이라 불려왔다. 그러나 무궁화는 단심(붉은색 무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심(붉은색 무늬)을 가지고 있으면서 꽃잎 한 옆으로 붉은색의 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이 때문에 색깔의 분류도 크게 나누면 순백색, 단심을 가지고 있는 것, 단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붉은색 띠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 등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배달계·단심계·아시달계라 부른다.

### # 무궁화의 번식

품종 또한 다양하여 취미에 맞게 선택해

가꿀 수 있으며, 접목이 잘되고 가지치기가 쉬워 분화 및 분재 소재로도 적당하다. 또 드물게 여름꽃이 오랫동안 피어있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옮겨 심기도 쉬워 사계절 볼거리를 할 수 있다. 거기에 절단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발근력, 유착력이 좋아 훌륭한 분재 소재가 될 수 있다.

### # 무궁화 정신을 기리며

무궁화는 매일 아침 일찍 새로이 꽃이 피는 부지런함과 진취성을 보여 주며, 우리의 민족성을 표상하고 있다. 민족과 함께 영광과 어려움을 같이해 온 우리나라꽃 무궁화. 어느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스스로 버티고 피워 온 무궁화의 세월이 우리 민족과 어딘가 닮아있다. 무궁화에 담긴 선조들의 고귀하고 평화의 정신을 삶의 지표로 삼아 무궁화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도록 무궁화 정신을 계승하고 더 나아가 발전시킬 수 있어야겠다.

정나연 수습기자





임광산 맑은 소리

##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안전

한재리 (치위생학과·2)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3년 동안은 마스크 없는 얼굴이 어색할 정도로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다. 그러던 올해 5월, 코로나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우던 시간은 지나가고 기다리던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처음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하고 21년, 22년을 지나 2023년이 돼서야 좀 지루함을 내리게 됐다.

다시 돌아보면 코로나 대응의 시간,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개학이 연기되고 대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경로가 감염된 환자의 타액으로 전염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됐다. 우리는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스크를 꺼내야 했다. 마스크를 놔두고 왔다면 주변 편의점에서 사서라도 써야 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기도 했고, 다양한 마스크 또한 개발됐다.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색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숨을 쉬기 편한 마스크, 비말용 마스크, 모양 또한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집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와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사실 처음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스크를 동일 착용하는 답답함을 생각하니 걱정되기도 했고, "독감이 유행했던 것처럼 조금 떠

들썩하고 지나가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달리 무려 3년이나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도 끝내 종식 선언을 하고 이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마스크를 벗지 못했다. 이유는 지독한 비염 때문이었다. 원래 황사는 3, 4월에 오지만 무슨 일인지 올해는 4월이 끝나갈 즈음에 와서 찾아왔다.

원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이맘때쯤이면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도 나 혼자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올해는 기상 예보에서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소식이 뜬해 조용히 지나가는 울분만 생각하고 혼자 행복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뒤, 강력한 황사가 찾아온다는 예보를 보고 나는 절망스러웠다. 코로나 때문에 지긋지긋하던 마스크, 드디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 마스크를 벗고 다닐 생각에 행복했는데 다시 써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했다. 하지만 기관지 건강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써야 하기에 답답하지만 며칠은 바깥의 출몰 할 때면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녔다. 누가 내 몸을 지켜주는 게 아님을 코로나를 통해 깊이 느꼈기 때문에 성실하게 쓰고 다녔다.

주변을 보면 마스크를 벗은 친구들도, 꼭 쓰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보였다. 아무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다고 해서 지난 몇 년간 마스크와 동고동락 해온 세월을 단숨에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반대로 마스크를 잊고 지나가다가 다시 챙겨 쓰는 일도 내겐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비염 환자에게 취약한 꽃가루와 황사 시즌을 마스크 덕분에 무시하곤 볼 수 있었다. 마스크 하나로 나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었다.

코로나 유행 이전에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거나, 봄에 황사가 찾아오거나, 겨울철에 감기, 독감이 유행할 시즌이 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예보 방송을 뉴스나 방송에서 자주 알려줘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사람은 위기를 한번 겪어야 한다고 했던가. 코로나 대응을 겪은 후,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지금도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겪은 뒤 "안전"이라는 것은 늘 우리 곁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기 때문이 아닐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숨쉬기도 힘들고, 착용감이 불편함을 느끼는 등 많은 것이 거슬린다. 그래도 앞으로 질병이 유행하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는 작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이나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안전이라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서라도 작게나마 노력하는 습관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한 사람이 하나씩 노력한다면 그 노력이 쌓이고 쌓여 우리 모두에게 행운으로 돌아오기에, 작은 노력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 죽비소리

## 대학교 나, 그리고 안전

김보민 (소프트웨어학과·2)

그렇게 만개하던 봄이 어느덧 지고 이제 산이 여름옷을 입을 시기인 6월이 다가오고 있다. 다들 그토록 고대하던 종강이 다가오고 있음이 실감이 난다. 4월, 5월엔 정말 많은 학교 행사가 있었다. 4월엔 운동장에서 진행된 동아리 버스킹이라던가, 5월엔 대학 생활의 꽃인 축제가 열렸다. 방사선학과에서는 학술제도 개최된 모양이다. 다양한 행사가 주최된 1학기였다. 그만큼 안전에 관한 문제도 많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경찰 행정학과는 축제 때 초청된 연예인들의 안전을 위해 경호도 썼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동시대엔 다양한 안전 문제와 관련돼 있다. 이 글에선 우리 학교와 안전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대학교는 지식과 연구의 영역에서 빛나는 곳이지만,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책임을 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교는 이제껏 다양한 방향에서 어떤 온전한 보호 아래에 있는 종교대학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안전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은 이에 대한 예방과 후처리 등의 일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안전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 내의 시설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교는 연구실, 강의실,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은 학문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전기 안전 문제, 화재 위험, 기계와 장비 안전 문제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학교는 안전 점검과 유지 보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방 시스템이나 전기시설,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등을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둘째, 대학 내 강력한 안전 정책과 교육이 필요하다. 안전은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대학은 안전 정책과 교육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비상 상황 대응, 화재 예방, 응급처치, 성희롱 등의 각종 폭력 예방 등을 포함해야 한다. 대학교는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안전 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설 안전, 정책 및 교육, 학생 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대학교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안전은 대학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대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은 학생의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생은 학업과 사회적 압력, 정신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학은 상담 서비스, 신체적 건강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추

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신건강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들은 대학 생활의 변화와 압박, 학업 부담 등의 이유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선 이와 같은 상담 서비스를 담당으로 관할하는 부서가 있다. 바로 국제협력관 1층에 있는 학생 생활 상담센터다. 학생생활상담센터는 마음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Peer Counseling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마음의 짐을 털어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대학교는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안전 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설 안전, 정책 및 교육, 학생 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대학교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안전은 대학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대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을 통해 다양한 측면으로 대학교의 안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학은 학문의 중심이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장소다. 안전은 대학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며,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대학교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 이달의 명언

복신과 주의는 안전의 부모다.  
-벤자민 프랭클린

사랑은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든다  
-아이스티

진실은 안전하게 듣고  
설 수 있는 유일한 토대다  
-엘리자베스 스탠턴

## 네 컷 만화

### 물놀이와 안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동서인들은 모두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

## 목회칼럼



최민구 교목실장

이번 189호 목회 칼럼에서는 '십계명과 성경의 핵심'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성경의 십계명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 그 두 가지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1계명은 나(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세 계명은 공통적으로 '하

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계명들을 소개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로 마무리하며, 이 계명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이야기를 덧붙여 보고 싶다. 미국의 파킹 건설 개발 회사인 <탐스>는 무려 회사의 이윤의 20%를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탐스>의 하형록 회장은 미국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전체 건축을 감독하는 건축 자문 위원으로 위촉된 적이 있었다. <탐스>의 파킹 건물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로 소문이 자자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형록 회장은 어려서 부산의 나환자촌에서 살았다. 하형록 회장의 아버지께서는 부산 용호동에서 목회를 하

## 십계명과 성경의 핵심

셨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문둥이' 동네에서 살았던 하형록 회장은 학교를 걸어 마을을 벗어날 때마다 '문둥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어린 하형록 회장은 '문둥이'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돌팔매질을 당해 피를 흘리기도 했었다고 한다.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하형록 회장의 아버지를 따라 하형록 회장은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건축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 하형록 회장은 사회에서 20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회사의 이사와 부사장에 오르게 돼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30세가 되던 해 고속도로 운전 중 갑작스레 기절을 한 하형록 회장은 병원에서 아주 심각한 심근 경색으로 심장지식 치료를 받았었다.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하형록 회장은 병원에서 심장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두 차례나 통독을 하니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됐다고 한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슴 속 깊숙이 품게 되고, 이제까지 자신을 위해 살았었지만, 새 인생이 주어진다면 이웃을 위해 살리라고 결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형록 회장은 자신이 5개월을 기다린 끝에 이식받아야 할 심장을 3일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양보하게 된다. 그렇게 하형록 회장은 심장을 이식받기로 한 날로부터 7일 만에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1개월이 되지 않은 어느 날 하형록 회장이 이식받아야 할 심장이 나타났지만, 사실 의학적으로 폐기해야 할 심장이었다.

그런데 의사들은 하형록 회장을 먼저 살려야 한다고 판단해 이식을 진행했고, 하형록 회장은 5년 뒤 재이식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형록 회장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됐다고 한다.

미국의 파킹 건설 개발 회사이자 하형록 회장의 회사인 <탐스>는 미국 내에서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회사들 중 손꼽히는 회사라는 결과를 일궈냈으며, 이웃을 위해 무려 회사 재정의 20%를 기부하게 된다. 하형록 회장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실천을 하며, 참으로 행복 한 삶을 살고 있다. 참으로 감동적이다. 그렇게 살고 싶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물음을 건네보려 한다. 독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아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요즘 사회를 보면 너무나도 어렵다. 나 살기 위해 남을 핍박하고 거짓 증언을 하며 모함하고 상해나 죄책감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듯 보인다. 성경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 사설 온라인 관계망, 나를 집어삼킬 그물망

디지털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음악 감상과 e북 등의 독서 활동, OTT를 통한 영화 감상 같은 보편적인 일방향이 문화 생활은 물론이고, 이제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구성해 듣는 다거나, 넷플릭스·왓츠 파피 등을 통해 영화를 함께 감상하며 음성이나 채팅으로 소통을 나누는 등의 쌍방향 문화 생활도 가능하다. 또 온라인 전시회나 영상화처럼 특별한 문화 생활을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

쌍방향 문화 생활이나 특별한 문화 생활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역시 코로나19가 아닐까 싶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제한되자,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지게 됐다. 전염병이 신세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괴롭게 만들었다. 사람에게 대한 그리움은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했고, 이로 인해 인스타그램 스토리 문화가 더욱 활성화됐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자신의 실시간을 보고하고, 다른 사람의 실시간을 확인하며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의 일상을 확인하거나 공감하기도 하고, 즉흥 약속을 잡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일상 공유에서 그칠 수도

있지만, 과한 정보 공유로 문제가 된다. 사진을 확대하면 근처 상가나 건물을 파악할 수 있고, 손쉽게 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다.

또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경우 실시간 위치 변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혹은 인스타그램 팔로워·팔로잉 목록을 보고 취미, 좋아하는 연예인 등을 조사해 의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마치 영화 <사치>처럼 말이다.

<사치>에서 가해자 남학생은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이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의 평소 취미나 취향에 대해 파악했고, 가짜 신분을 만들어 피해자가 좋아하는 주제의 질문을 하며 친분을 쌓았다. 피해자와의 심적 거리가 예 도달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서치를 보면 느낀 건 개인 정보 관리뿐만이 아니다. SNS로 이뤄진 관계망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되자 SNS를 통한 관계망 형성이 전보다 보편화됐다. 이전에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한 위험의식과 불안함이 있었다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고독함, 외로움, 우울함 등이

위험의식, 불안함이라는 생각보다 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SNS를 통한 인간 관계의 형성은 위험하다. 5월 25일, '신림캠' 멤버 가운데 20대 남성 A씨가 미성년자를 유인해 음주·마약을 권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체포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됐다.

신림캠은 '우울증 갤러리' 내에서 만나 속삭이를 함께 한다는 이들의 모임이다. '우울증 갤러리'라는 디시인사이드 웹사이트 내에 있는 커뮤니티로, 원래는 우울증에 대한 정보를 찾고 서로 소통하며 심적 위로를 얻는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커뮤니티에서 만난 지난해 가출해 실종신고 상태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신림캠 근거지에 머물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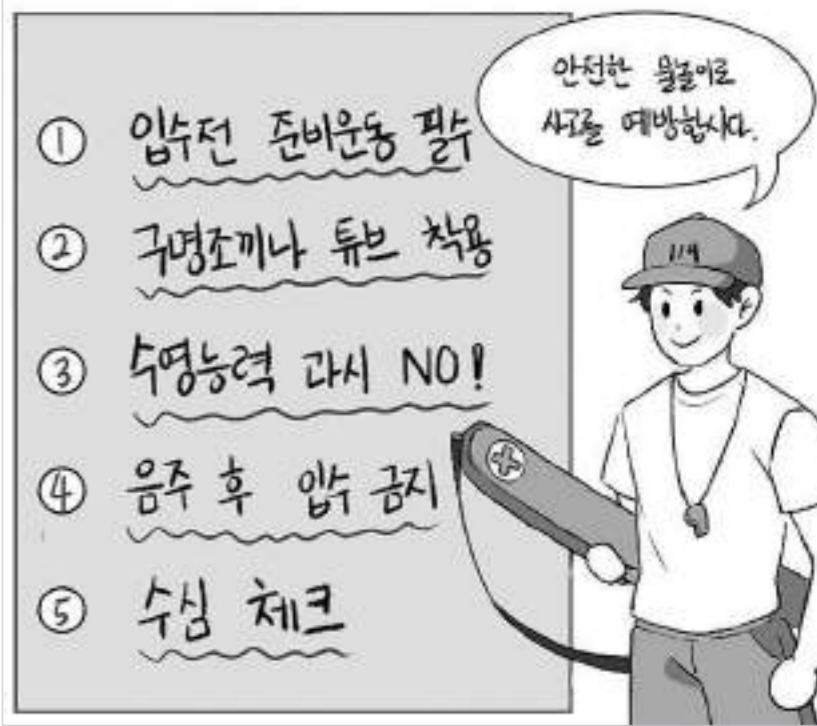
피해자가 심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댓글로 소통하며 피해자와의 거리를 좁힌 가해자에게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치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따뜻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무섭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나를 지키는 건 오직 나만이 가능하다.

## 동서만평

글·그림 김은아

### <물놀이 안전수칙>









#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2023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AI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23. 06. 06.  
 • 응모대상 : 대학생, 대학원생  
 • 공모분야 : 문학·학술·공학



■ B.Startup 캠퍼스 리빙랩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3. 06. 06.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대학원생  
 • 공모분야 : 아이디어·창업·네이밍



■ 미래 직업 크리에이터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 접수기간 : ~2023. 06. 09.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대학원생  
 • 공모분야 : 아이디어·창업·네이밍



■ 2023년 인문실험 공모전  
 • 접수기간 : ~2023. 06. 09.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 공모분야 : 기타(예제능, e스포츠 등)



■ 삼성생명 보협스토리 웹소설/에세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3. 06. 16.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대학원생, 주부 및 영유아  
 • 공모분야 : 문학·학술·공학



■ 2023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23. 06. 19.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대학원생  
 • 공모분야 : 아이디어·창업·네이밍



■ 대한민국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모전 &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3. 06. 23.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대학원생  
 • 공모분야 : 문학·학술·공학



■ 청년이 제안하는 젠더갈등 해소방안 공모  
 • 접수기간 : ~2023. 06. 23.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대학원생  
 • 공모분야 : 사진·영상



■ 2023 더램프 스토리 공모전  
 • 접수기간 : ~2023. 06. 23.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대학원생  
 • 공모분야 : 문학·학술·공학



■ 제5회 가야 인스파이어링 문학상  
 • 접수기간 : ~2023. 06. 30.  
 • 응모대상 : 대학생, 대학원생, 중학생, 고등학생  
 • 공모분야 : 문학·학술·공학



■ 2023 RecurDyn Simulation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23. 06. 30.  
 • 응모대상 : 대학생, 대학원생  
 • 공모분야 : 문학·학술·공학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청년 아이디어 콘텐츠 공모전 <내 아이Dear>  
 • 접수기간 : ~2023. 06. 30.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대학원생  
 • 공모분야 : 아이디어·창업·네이밍

## 내 손으로 찍은 동서대학교!

**우리 대학의 풍경 사진을 찍어 제보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음 달 신문 1면~3면에 제보해 주신 사진들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소중한 경험을 동서대학보를 통해 즐겨 보세요.

예시) 우리 대학 풍경, 학교에 사는 고양이 등

- ✧ 제보하고 싶은 사진은 방학 중으로 01tarbf1@gmail.com으로 보내 주세요.
- ✧ 당첨자 발표는 따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발간되는 190호(9월호) 신문을 확인해 주세요.
- ✧ 신문에는 사진과 함께 제보해 준 학생의 학과,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